

혼자 병원에 갔어요

글 | 박철주

그림 | 김정현

글 | 박철주

그림 | 김정현

편집 | 김은파, 이수인, 이정아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목소리 | 황창영



“엄마, 열나.”
어제부터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더니, 열까지 났어요.



“그러네. 엄마가 지금 바쁘는데
병원에 혼자 다녀올 수
있겠니?” “혼자?”

“수호는 씹씹하니까 할 수
있을 거야.”

혼자서 엄마랑 같이 다니던
소아과에 갔어요.



“수호 혼자 왔네.”

간호사 선생님이 다정하게
맞아 주셨어요. 얼른 접수를
하고 의자에 앉았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열을 재고 진료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가슴이랑 등에
청진기를 대고 진찰을
하셨습니다.



“입 크게 벌리고, 아 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나무 막대로
혓바닥을 누르고 목을
살피더니, “목이 많이
부었구나.” 하셨어요.



구역질도 나고 눈물도 찼끔
났지만 꼭 참았어요.

“잘 참았어요.”

진료실을 나와 진료비를
내고, 약 처방전 두 장을
받았어요.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약사
선생님께 드리니 약을
주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약
먹어.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약봉지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와! 싹싹하네. 혼자 병원도
갔다 오고.”

엄마 칭찬에 벌써 다 나온 것
같아요.



“혼자 병원에 갔어요”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